

국제활동

한·중·일 분석과학 심포지움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중국 선양 동북대학교에서 8.22(금)부터 8.24(일)까지 개최한 한·중·일 분석과학 국제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한국의 특수 건강진단 생체시료 정도

관리 20년사와 소변 중 코티닌 분석 방법 검증 등 2건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연제는 분석 장비를 이용한 일상 분석 외에도 유전자 변형 기법을 이용한 중금속 분리, 양자점(퀀텀도트)을 이용한 미량 성분 추적 분석, 나노입자 분석, 검출기 개발, 세포내 성분 분석 등으로, 응용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분석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었다.

방폭기기 국제간 상호인정제도 (IECEX Scheme) 정기회의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8.24(일)~8.30(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방폭기기 국제간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안전인증센터에서는 방폭기기 국제간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의 방폭인증 운영위원회(ExMC) 및 방폭시험소 평가그룹(ExTAG) 정기회의에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심의 및 기술 토론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규정 제·개정 참여를 통해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국으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격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4 OECD 제조나노물질의 분류에 대한 전문가 회의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17(수)부터 9.19(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제조나노물질 작업반에서 주관한 제조나노물질의 분류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 참여했다. 제조나노물질은 매년 새롭고 다양한 물질로 개발되고 있어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나노물질의 분류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나노물질의 분류가 위험성 및 노출 평가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위해도 평가에서 목표 설정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제조나노물질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OECD 제조나노물질작업반에서는 제조나노물질의 분류를 시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독성동태학, 거동, 위험성 평가 및 노출 평가와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분류를 지원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개발할 것을 OECD 및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소식·동정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4.9.4(목)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울산양육원을 방문하여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연구지원팀 직원 7명이 참여하여 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청소와 아이들 보육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2014.9.3(수)과 19일(금) 양일 간 울산중구 성안동 소재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팀은 2014.9.4(목) 울주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직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한 후 장애우들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연구원장 메시지

“기분좋은 변화와 소통”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도적 정책추진 연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으로 취임(2014.9.1)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직업병 발생,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 만인율 등 아직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등으로 부각된 안전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여야만 합니다.
저는 공단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책안전보건연구기관으로서 안전보건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총량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래형 사고성 재해(떨어짐, 넘어짐, 끼임) 예방을 위한 연구, 반도체,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연구, 나노물질, 희토류 금속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연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실용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연구 및 분야별 정보(안전보건 이슈 리포트, 연구실용화 리포트, 연구원 소식지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연구원과

독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원 발전방안 수립을 통한 내부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만성흡입에 의한 독성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증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저는 위 사항들에 대한 실행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자 여러분의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소식지는 향후에도 연구원과 독자 여러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권혁면

안전보건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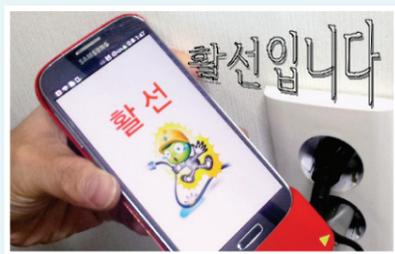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 창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연구실용화(Research To Practice, R2P) 사업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를 창간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공단의 연구결과,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R2P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는 연구의 실용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 2회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 창간호에는 ‘미끄럼 방지 성능기준 제정 및 미끄럼 방지화의 보급’ 등 5편의 원고가 게재되었다. 본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 (oshri.kosha.or.kr)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 “휴대폰을 활용한 활선 검지 및 경보장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IT를 활용한 안전기술 구축 연구”를 다년간 수행 중에 휴대폰으로 활선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산업안전연구실 최상원 연구위원)하여, 2014년 8월 실용신안 제20-0474232호로 등록하였다. 이 장치는 언제나 휴대 가능한 휴대폰에 외부 통신모듈을 장착하여 활선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최상원 연구위원은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활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줄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질식사고 등 고립된 장소에서의 단독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보호구 산업발전을 위한 TIIS와의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8.20(수) 일본산업 안전기술협회(TIIS)와 국내 보호구 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공단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인증절차, 방법 및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를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사업장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일본 인증 취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요인을 경감시켜 정부3.0 및 창조경제에 부합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전인증센터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보호구협회와 보호구 제조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혼합물질 노출시나리오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9.30(화) 서울 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ST Europe과 공동으로 혼합물질 노출시나리오 프로그램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속서로서 노출시나리오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것으로, 유럽의 혼합물질에 대한 규제 동향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ES-Modifier를 설명함으로써 노출시나리오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보건 단신

청렴콘테스트 ‘We are CLEAN!’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9.1(월)부터 9.15(월)일까지 2주間に 걸쳐 청렴콘테스트 ‘We are CLEAN!’을 개최하였다. 이번 콘테스트는 직업건강연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에 관련된 표어, 사진, 에세이 등 3개 부문을 진행하였다. 총 45건의 작품이 응모되었는데, 그 결과 표어부문 「켜요 청렴등불 하나. 껴요 부패세상 하나.」 사진부문 「당신의 청렴은 어떤 향기입니까?」, 에세이 부문 「법대로 산다는 것」 작품이 각 1위를 차지하여, 9.22(화)에 시상을 하였다.

청렴콘테스트를 통해 전직원이 동참하고, 청렴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에 기여하였다.

구분	제목
청렴표어	• 켜요 청렴등불 하나. 껴요 부패세상 하나.
청렴사진	• 당신의 청렴은 어떤 향기입니까? 
청렴에세이	• 법대로 산다는 것

울산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참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8.11(월)~8.12(화), 양일간 ‘울산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캠프’에 참여하여 개인보호구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한 안전인증센터는 개인 보호구(12품목) 전시 및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안내 판넬(8종)을 게시하였으며, 실제 착용할 수 있는 체험관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예비 산업역군인 울산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많은 참여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전시관’ 체험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에게는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국제활동

ACOH 2014 국제학술대회 참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2(화)부터 9.4(목)까지 3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아시아 산업보건 컨퍼런스 (ACOH : Asi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에 참석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A ventilation evaluation for final packing process of microelectronics cleanrooms b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등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5편의 포스터를 발표하고, 한중일 집담회에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직업환경연구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파악 및 협력 관계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산업의과대학 생태과학연구소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모임을 갖고 향후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아시아 산업보건 컨퍼런스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 매 2~3년 마다 개최되고 있다.

ISO/TC 146 국제규격 심의회의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22(월)부터 9.26(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에서 개최된 ISO/TC 146 국제규격 심의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우리 연구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전문위원회 중 공기의 질(air quality) 분야를 다루는 TC146(Technical Committee 146)의 투표회원(P-member)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국제규격(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하였다. TC 146 회의에서는 “ISO/DIS 16258-1 : Workplace air - Analysis of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by x-ray diffraction - Part 1: Direct on-filter method” 등 6건의 주요 심의안에 대한 국제규격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의



가짐으로써 최신 국제 표준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지침 제·개정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